

“무더위에 음료 한 잔도 부담”...여름 인기 식음료 줄인상

편의점 콜라·사이다 등 가격 인상
설빙 빙수 11종 평균 4.2% 상승
광주지역 3월 냉면값 4.0% 올라

올해 여름 무더위에 시원한 음료수 한 잔이 더 부담스러워질 전망이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성수품인 각종 식음료 가격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5월부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각종 음료 가격이 100~200원씩 올랐다.
LG생활건강이 운영하는 해태이치티비는 ‘갈아만든배’의 가격을 340ml와 500ml를 기존 각각 1,600원·2,200원에서 100원씩 상승했다. 포도봉봉캔, 코코팝포도, 평창수도 약 100원씩 비싸졌다.
코카콜라음료도 지난 1일부터 편의점 등에 공급하는 스프라이트, 미닛메이드, 조지아 등 일부 품목의 출고가를 평균 5.5% 올렸다.

유통계도 예외는 아니다. 매일유업의 카페라떼는 2,100원에서 2,300원으로, 허쉬초콜릿링크는 1,400원에서 1,6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한국아쿠르트는 같은날부터 ‘아쿠르트 라이트’ 가격을 기존 220원에서 250원으로 30원 올렸다.
서울우유는 대표 제품 54개의 출고가를 평균 7.5% 올렸다. 이번 가격 인상 품목에는 가공유 23개, 발효유 4개, 치즈 18개, 버터 2개, 생크림·연유 4개, 주스 3개 등이 포함됐다. 다만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흰우유는 인상 대상에서 빠졌다.
팔도 ‘비락식혜’는 용량별로 가격을 100원·200원 상승 조정했다.
여름철 대표 디저트인 빙수 브랜드 설빙도 인상 대열에 합류한다. 전체 설빙 빙수 메뉴 28종 중 11종이 해당되며 평균 가격 인상률은 4.2%다. 제품별 400~600원 쏠리며 커피 8종 등은 제품별로 200~700원 상승했다.
세부 품목별 상승률은 △인절미 설빙(4.2%) △초코브라우니 설빙(4.6%) △애플망

고치즈 설빙(4.3%) 등이다.
해당 제품이 포함된 세트 메뉴 값 역시 평균 2.8% 상승한다.
매년 여름철 가격이 폭등하는 냉면은 올해도 비슷한 추세다. 지난 3월 광주지역 냉면 평균가격은 1만 300원으로 전월(2월·9,900)원 보다 4.0% 올랐다. 전년동월 대비해서는 7.2% 오른 수준이다.
제조사들은 지속되는 원부자재값과 환율 상승, 인건비 상승 등 영향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홍승현 기자

국토부, 스마트건설 미래 이플 강소기업 모집

기술개발 최대 3천만원 지원

국토교통부는 우수한 스마트건설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해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스마트건설 강소기업(20개)을 모집한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은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지원은 창업단계의 새싹기업 지원사업, 기술개발 단계의 기술실증 지원사업과 함께 유망 중소기업들의 선순환 성장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선정 기업은 향후 3년간(2년 연장 가능) 역량강화, 금융지원, 시장진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역량강화 분야는 시제품 제작 및 아이디어 검증 등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최대 3,000만원)하고, 기업 진단 및 이와 연계한 전문가 컨설팅도 추진한다.
금융지원 분야는 기술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등을 활용하고, 각종 수수료 등도 할인한다.
시장진입 분야는 개발한 기술을 현장에서 실

증할 기회를 제공하고,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강소기업으로 공시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하며, 테크로드쇼 참여 기회 제공, 해외 진출 지원 등 판로개척도 추가 지원한다.
강소기업들의 재무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신용등급 결격 기준을 상향(b- 미만 →b0 미만)하고, 심층평가위원회 회계사와 투자·심사 전문가 등을 추가해 재무 건전성도 면밀히 평가할 계획이다.
한편 2023년부터 24년까지 BIM(3차원 건설정보모델링), 탈현장 건설, 건설자동화, 디지털 센싱, 스마트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등 다양한 스마트건설 분야에서 총 40개 기업이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들은 시제품 제작 지원(37개), 기술 현장 적용(18건), 특허출원(17건) 등 각종 성과가 있었으며, 투자전문기관의 멘토링 등도 계속 지원받는다.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6월 5일까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공고문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http://kict.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연수 기자



“선글라스, 미리 준비하세요”

(*)광주신세계가 트렌디한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대로 인기를 끌고 있는 ‘리콜로우(RECLOW)’ 브랜드를 선보인다. 자외선을 99% 차단하는 UVA렌즈를 사용하고, 전통적인 가공 방식에 트렌디함을 담은 제품으로 유명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경총, 내일 ‘트럼프와 혼돈의 시대’ 특강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는 오는 9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서상영 애널리스트를 초청해 ‘트럼프와 혼돈의 시대’를 주제로 제1684회 금요조찬 포럼 특강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진행형 관세정책 문제점이 집중될 것

으로 보인다.
서 애널리스트는 현재 미래에셋증권 WM혁신본부 상무로 한국경제 등 시황부문 베스트 애널리스트다. 한국은행 총재 대의 포상,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유공, 매일경제TV 등 다수 방송에 출연했다. 이연수 기자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마중물 역할하겠다”

유병용 LH광주전남본부장 취임

“고향인 광주전남지역에 본부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설레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17대 광주전남지역본부장에 7일 유병용 본부장이 취임했다.

신임 유병용 본부장은 광주 출신으로 전남대학교를 졸업하고, 1996년 LH에 입사해 다양한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본사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 인천본부 주거복지처장을 거쳐 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리를 역임했으며, 신축매입약정 활성화를 통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등을



유병용 본부장

진두지휘했다.
유 본부장은 “어려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주택시장 안정화, 주거복지 서비스 확대와 함께 청렴 공정, 안전관리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연수 기자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제조업

주식회사 폴 테 크

도로 안전표지판지주, 신호등주, CCTV지주, 가로등주, 종합플, 태양광 가로등주 등 도로교통지주 분야를 개발, 설계하여 나라장터, 쇼핑몰 제품등록, 정부 R&D를 통하여 친환경 에너지와 스마트시스템을 교통지주와 결합하는 아이디어 제품 개발하고 있습니다.

도로안전표지판 지주

신호등주

폴테크 외부 전경

폴테크 내부 전경

주식회사 폴테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163 (리팩토리 대불) 공장동 106호
Tel . 061) 464-8992 Fax . 061) 464-8993